

# 돌아오지 않는 행진

승대극회 79회 정기 공연

신설 대학극장 첫 공연

**NEW First Step**

2011.11.24(목) ~ 26(토)

24(목) 오후 7시30분

25(금) 오후 4시 | 7시30분

26(토) 오후 2시 | 6시



연출 · 작 · 위성신

기획 | 이준석 이현종 홍창교 소장호 양명호 이명성

주최 | 승대극회  
Since 1921

주관 | 숭실대학교

후원 | 동작구 승대극회 동문회

협찬 | KDB산업은행

aurazi!  
DESIGN STUDIO

OXB  
글로벌어학원

OXB  
옥스비어학원

## 정기 공연 연보

- 1921년 6월 13일 연홍소인극 <쥘서영웅 나폴레옹의말로> <대비극 노예의 탑>
- 1923년 7월 7일 전원극 <우의리행진> <기계인간> <동백꽃> <십년후> 앱엣청년회주관
- 1923년 7월 28~29일 <소인연극> 고학생후원회 주관
- 1965년 10월 제1회 <페궁으로 돌아오다> 황석영 작, 이반 기획, 전진호 연출
- 1968년 10월 제2회 <Our Town> Thorn Wild 작, 이태주 연출
- 1969년 10월 제3회 <의자들> E.이오네스코 작, 고봉인 연출
- 1969년 10월 제4회 <The Miracle Worker> William Gibson 작, 고봉인 연출
- 1970년 5월 제5회 <성자의샘물> John Millington Synge 작, 한영제 연출
- 1970년 10월 제6회 <승부의 결말> 사무엘 베케트 작, 김양기 연출
- 1971년 5월 제7회 <The Rising of the Moon> Lady Gregory 작, 정종화 연출
- 제7회 <검널목 삼화> 운조병 작, 주정서 연출
- 제7회 <담배해독에 대하여> 안준 체홉 작, 한영재 연출
- 제7회 <황금단지> 푸리우터스 작, 유흥배 연출
- 제7회 <고도를 기다리며> 사무엘 베케트 작, 차현재 연출
- 1971년 11월 제8회 <저격병의 그림자> 산 오케이시 작, 차현재 연출
- 1972년 5월 제9회 <생일 파티> 해틀드 핀터 작, 한영재 연출
- 1973년 5월 제10회 <미시시피의 결혼> F.뒤렌마트 작, 고봉인 연출
- 1973년 10월 제11회 <방> H.핀터 작, <(기도)>(소극장) f.아라발 작, 김득남 기획, 차현재 연출
- 1974년 5월 제12회 <정의의 사람들> a.까워 작, 정종화 연출
- 1975년 6월 제13회 <싸울터의 산책> <도스토에프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김홍수 기획, 안홍순 연출
- 1975년 10월 제14회 <비더만과 방학범> 맥스 프리시 작, 김기열 기획, 안홍순 연출
- 1976년 1월 제15회 <인터넷> 장 클로드 반 이태리 작, 김기남 기획, 김득남 연출
- 1976년 10월 제16회 <뱀> 장 클로드 반 이탈리 작, 김영덕 연출
- 1977년 6월 제17회 <EQUUS> 피터쉐퍼 작, 백정식 기획, 김영덕 연출
- 1977년 10월 제18회 <EQUUS> 피터쉐퍼 작, 방영철 기획, 김영덕 연출
- 1978년 6월 제19회 <Counter point> Olov Hartman 작, 방영철 기획, 김영철 연출
- 1978년 10월 제20회 <EQUUS> 피터쉐퍼 작(대학연극축제참가) 민승기 기획, 김영덕 연출
- 1979년 6월 제21회 <한강 1979> 김영덕 작, 정재호 기획, 이병국 연출
- 1979년 9월 제22회 <초본> 오태석 작, 이정일 기획, 황정순 연출
- 1980년 11월 제23회 <아니, 이 생명은 누구의 것인가?> 브라이언 클라크 작, 엄세범 기획, 박양권 연출
- 1981년 6월 제24회 <노부인의 방문> F. 뒤렌마트 작, 이종규 기획, 황정순 연출
- 1981년 11월 제25회 <달맞이 꽃> 김병종 작, 전석근 기획, 황정순 연출
- 1982년 5월 제26회 <카리클라> A.까워 작, 음태웅 기획, 지숙 연출
- 1982년 10월 제27회 <쉐도우 박스> M.크리스토퍼 작, 전희식 기획, 황정순 연출
- 1983년 6월 제28회 <미시시피의 결혼> F.뒤렌마트작, 전희식 기획, 김영덕 연출
- 1983년 10월 제29회 <트레버> 존 보웬 작, 이원우 기획, 오정열 연출
- 1984년 5월 제30회 <도가니> A.밀러, 이종규, 엄세범 기획, 오세환 연출
- 1984년 10월 제31회 <변전소> 존 스톨텐버그 작, 차세훈 기획, 이용섭 연출
- 1985년 5월 제32회 <빈민굴> 존 스톨텐버그 작, 김상현 기획, 이용섭 연출
- 1985년 11월 제33회 <신부님 우리 신부님> 조반니 과레스키 작, 하승민 기획, 송기범 연출
- 1986년 6월 제34회 <EQUUS> 피터쉐퍼 작, 하성우 기획, 하승민 연출
- 1986년 9월 제35회 <코뿔소> E.이오네스코 작, 안상준 기획, 송기범 연출
- 1987년 6월 제36회 <한 여름 밤의 꿈> 세익스피어 작, 권형진, 이준석 기획, 오정열 연출
- 1987년 9월 제37회 <오해> A.까워 작, 오정열 기획, 박경근 연출
- 1988년 6월 제38회 <세 번은짧게 세 번은 길게> 이어령 작, 이충일 기획, 오정열 연출
- 1988년 10월 제39회 <안내나? 못내나!> 다리오 포 작, 권태수 기획, 송근호 연출
- 1989년 5월 제40회 <농녀> 윤조병 작, 천승범 기획, 안선후 연출
- 1989년 10월 제41회 <대성당의 살인> T.S.ELIOT 작, 오정열 기획, 이반 연출
- 1990년 5월 제42회 <안티고네> 장 이누이 작, 권태수 기획, 이준석 연출
- 1990년 8월 제43회 <황씨연대기> 황석영 작, 천승범 기획, 이영민 연출
- 1991년 9월 제44회 <생일파티> H.핀터 작, 남재우 기획, 권승혜 연출
- 1991년 9월 제45회 <날개> 이상 작, 양현준 기획, 권형진 연출
- 1992년 3월 제46회 <우린 나발을 불었다> 김상렬 작, 임경희, 정현용 기획, 흥은영 연출
- 1992년 9월 제47회 <금관의 예수> 김지하 작, 흥석환 기획, 송근호 연출
- 1993년 10월 제48회 <세일죽음즈맨의 죽음> A.밀러 작, 황명식 기획, 박원상 연출
- 1993년 10월 제49회 <택시택시> 김상수 작, 소장호, 이명상 기획, 박원상 연출
- 1994년 5월 제50회 <굿 닉터> 닐 사이먼 작, 정석용 기획, 소장호 연출
- 1994년 9월 제51회 <안티코네> 소포클레스 작, 소장호 기획, 박원상 연출
- 1995년 5월 제52회 <상자속의여자> 김윤미 작, 현승욱 기획, 류성환 연출
- 1995년 11월 제53회 <나의라임온젠지나무> 바스콘셀로스 작, 김은성 기획, 남재우 연출
- 1996년 3월 제54회 <자살> 김현복 작, 한석운 기획, 손미라 연출
- 1996년 9월 제55회 <옥망이라는 이름의 전자> 테네시 윌리엄 작, 조태희 기획, 이중희 연출
- 1997년 3월 제56회 <우리 음네> 손튼 와일더 작, 신하영 기획, 서수경 연출
- 1997년 10월 제57회 <개교 100주년동문합동> <대성당의 살인> T.S.ELIOT 작, 엄세범 기획, 정종화 연출
- 1998년 3월 제58회 <살인 놀이> 이오네스코 작, 조태희 기획, 권내리, 이정미 연출
- 1998년 11월 제59회 <물고기의축제> 유미리 작, 윤장한 기획, 조태희 연출
- 1999년 3월 제60회 <사람은 저마다 모두 색맹입니다> 이정원 작, 이윤재 기획, 이경희 연출
- 1999년 9월 제61회 <세상 낚기> 이정원 작, 이정원 연출
- 2000년 5월 제62회 <아름다운 시인> 정진 작, 이윤재 기획, 이경희 연출
- 2000년 8월 제63회 <소나기> 황순원 작, 김귀하 기획, 박정극 연출
- 2001년 3월 제64회 <인간에 대한 예의> 서정훈 작, 이옥재 기획, 서정훈 연출
- 2001년 9월 제65회 <바리보다 닮아가다> 김희진 작, 서정우 기획, 김희진 연출
- 2002년 3월 제66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괴테 작, 김영걸 기획, 김명진 연출
- 2003년 3월 제67회 <옥수동에서면 암구정동이 보인다> 김태수 작, 이미나 기획, 윤장한 연출
- 2003년 9월 제68회 <고도를 기다리다 보면> 사무엘 베케트 작, 김성은 기획, 최연경 연출
- 2004년 6월 제69회 <평화씨> 아리스토파네스 작, 김성은 기획, 강혜정 연출
- 2005년 3월 제70회 <마술가게> 이상범 작, 김성은 기획, 이옥재 연출

## 정기 공연 연보

- 2005년 10월 제71회 <허바쿠사> 흥가이 작, 정한길 기획, 한재진 연출
- 2006년 6월 제72회 <정춘예찬> 박근영 작, 이고운 기획, 이옥재 연출
- 2006년 9월 제73회 <사랑에 관한 일곱가지 소묘> 위성신 작, 김병현 기획, 김승태 연출
- 2007년 5월 제74회 <굿 닉터> 닐 사이먼 작, 신영준 기획, 한재진 연출
- 2007년 9월 제75회 <개교 110주년동문합동> <천년제국 1623년> 차근호 작, 이준석, 권형진, 양현준, 이명성, 윤대현 기획, 박경근 연출
- 2008년 11월 제76회 <Open Couple> 다리오 포 작, 이보라 기획, 김명희 연출
- 2010년 11월 제77회 <일요일의 불청객> 이근삼 작, 김현우 기획, 서동현 연출
- 2011년 5월 제78회 <같이, 미친다> 닐 사이먼, 서현칠, 안톤 쇼풀 작, 김상현 기획, 김진욱 연출
- 2011년 11월 제79회 <신축 학생회관 개관 기념공연> <술집\_돌아오지 않는 햄릿> 위성신 작, 이준석, 소장호, 이명성, 양명호, 이현종, 홍정교 기획, 위성신 연출
- 1995년 9월 제40회 <황씨연대기> 황석영 작, 천승범 기획, 이영민 연출
- 1996년 3월 제41회 <생일파티> H.핀터 작, 남재우 기획, 권승혜 연출
- 1996년 9월 제42회 <안티고네> 장 이누이 작, 권태수 기획, 이준석 연출
- 1997년 5월 제43회 <황씨연대기> 황석영 작, 천승범 기획, 이영민 연출
- 1997년 9월 제44회 <생일파티> H.핀터 작, 남재우 기획, 권승혜 연출
- 1998년 3월 제45회 <날개> 이상 작, 양현준 기획, 권형진 연출
- 1998년 9월 제46회 <우린 나발을 불었다> 김상렬 작, 임경희, 정현용 기획, 흥은영 연출
- 1999년 3월 제47회 <금관의 예수> 김지하 작, 흥석환 기획, 송근호 연출
- 2000년 10월 제48회 <세일죽음즈맨의 죽음> A.밀러 작, 황명식 기획, 박원상 연출
- 2000년 10월 제49회 <택시택시> 김상수 작, 소장호, 이명상 기획, 박원상 연출
- 2001년 5월 제50회 <굿 닉터> 닐 사이먼 작, 정석용 기획, 소장호 연출
- 2001년 9월 제51회 <안티코네> 소포클레스 작, 소장호 기획, 박원상 연출
- 2002년 3월 제52회 <상자속의여자> 김윤미 작, 현승욱 기획, 류성환 연출
- 2002년 9월 제53회 <나의라임온젠지나무> 바스콘셀로스 작, 김은성 기획, 남재우 연출
- 2003년 3월 제54회 <자살> 김현복 작, 한석운 기획, 손미라 연출
- 2003년 9월 제55회 <옥망이라는 이름의 전자> 테네시 윌리엄 작, 조태희 기획, 이중희 연출
- 2004년 3월 제56회 <우리 음네> 손튼 와일더 작, 신하영 기획, 서수경 연출
- 2004년 9월 제57회 <개교 100주년동문합동> <대성당의 살인> T.S.ELIOT 작, 엄세범 기획, 정종화 연출
- 2005년 3월 제58회 <살인 놀이> 이오네스코 작, 조태희 기획, 권내리, 이정미 연출
- 2005년 9월 제59회 <물고기의축제> 유미리 작, 윤장한 기획, 조태희 연출
- 2006년 3월 제60회 <사람은 저마다 모두 색맹입니다> 이정원 작, 이윤재 기획, 이경희 연출
- 2006년 9월 제61회 <세상 낚기> 이정원 작, 이정원 연출
- 2007년 3월 제62회 <칼멘의고백> 김종철 작, 박용혁 기획, 이옥재 연출
- 2007년 9월 제63회 <결혼> 이강백 작, 장한샘 기획, 김성훈 연출
- 2008년 3월 제64회 <카프리> 정다운 작, 정다운 기획, 정다운 연출
- 2008년 9월 제65회 <결혼> 정다운 작, 정다운 기획, 정다운 연출
- 2009년 3월 제66회 <칼멘의고백> 김종철 작, 박용혁 기획, 이옥재 연출
- 2009년 9월 제67회 <결혼> 정다운 작, 정다운 기획, 정다운 연출
- 2010년 3월 제68회 <다섯번째 자살> 김수형 작, 이호림 기획, 유병기 연출
- 2010년 9월 제69회 <다섯번째 자살> 김수형 작, 이호림 기획, 유병기 연출
- 1995년 3월 제70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1995년 9월 제71회 <봄 날> 이강백 작, 양명호 기획, 정석용 연출
- 1996년 3월 제72회 <울어 뱃고동아> 성준기 작, 정재훈 기획, 김형근 연출
- 1996년 9월 제73회 <울어 뱃고동아> 성준기 작, 정재훈 기획, 김형근 연출
- 1997년 3월 제74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1997년 9월 제75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1998년 3월 제76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1998년 9월 제77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1999년 3월 제78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1999년 9월 제79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00년 3월 제80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00년 9월 제81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01년 3월 제82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01년 9월 제83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02년 3월 제84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02년 9월 제85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03년 3월 제86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03년 9월 제87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04년 3월 제88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04년 9월 제89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05년 3월 제90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05년 9월 제91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06년 3월 제92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06년 9월 제93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07년 3월 제94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07년 9월 제95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08년 3월 제96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08년 9월 제97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09년 3월 제98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09년 9월 제99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10년 3월 제100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10년 9월 제101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11년 3월 제102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11년 9월 제103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12년 3월 제104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12년 9월 제105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13년 3월 제106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13년 9월 제107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14년 3월 제108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14년 9월 제109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15년 3월 제110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15년 9월 제111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16년 3월 제112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16년 9월 제113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17년 3월 제114회 <여인왕자> 셀때 쥐베리 작, 이명성 기획, 흥석환 연출
- 2017년 9월



학생처장 | 강기두

### 승대극회 합동공연을 앞두며

승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승대극회의 공연에 관람하기 위해 승실대학교를 방문하신 관객여러분께도 진심어린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학생활의 중심이 되고 학생활동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될 학생회관 개관을 기념하여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본교 동아리, 승대극회가 동문합동공연을 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4년제 대학으로서 우리 승실대학교는 올해로 개교 114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대학이라는 영예를 갖고 114년 전 평양에 세워진 우리 학교는 진리 탐구와 실천적 봉사로 최초의 대학에서 최고의 대학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대학도 이루지 못한 대학평판도의 급격한 상승은 강한대학으로서의 우리 승실의 발전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승실대학교는 '학생이 만족하는 강한 대학'을 경영목표로 학교의 모든 역량을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으며 개교 114주년을 맞아 더 큰 미래를 위한 변화와 발전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혁신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캠퍼스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학생회관을 신축함으로서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축 개관하게 될 12월 9일에 개관하는 학생회관은 학생민원부서, 동아리실, 복지매장 등의 편의시설과 공연장, 방음 연습실을 겸비한 Multiplex로서 학생들에게 자부심과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함께 개관할 국제규격의 축구장은 승실대학교의 위상을 더 한층 높여줄 수 있는 요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학생회관 개관 기념 공연을 하게 되는 승대극회는 1921년 평양 승실에서부터 승실대학교와 그 역사를 함께 하였으며, 순수 연극 공연을 통한 승실 대학 문화의 선두주자로서, 연극 및 영화계에 다수의 리더를 배출한 자랑스러운 문화 예술동아리이기도 합니다. 학생회관 개관 축하를 겸하는 이번 승대극회 동문합동공연이 뜻깊은 행사라고 생각하며, 본 공연을 계기로 우리 승실대학교 학생들의 활동이 이제는 대학 문화를 넘어서 지역문화로의 확대를 위해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학생회관 개관을 맞아 우리 승실대학교는 '학생이 만족하는 강한대학', '최초로서의 자부심, 최고를 향한 자신감'으로 계속해서 발전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승실 가족 및 관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또한 성공적인 공연을 위해 마지막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한 승대극회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공연, 행복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학생처장 강기두



이반 교수님

### 창단전야

군대에서 제대하고 마음먹고 공부하려는데 철학과 1년 후배로 소설가 황석영씨가 입학했다. 승대극회를 만들어 연극하자니, 시골에서 성장한 나는 신파극 몇 번 밖에 본 경험이 없는데, 연극 하자니, 감이 잡히지 않아 사양했다. 찰거머리 같이 달라붙는 후배의 성화에 못 견뎌 결국 승대극회가 결성되고 나는 그 뒷바라지를 하게 되었다. 작품은 석영이가 써왔다.

'폐궁으로 돌아오다.' 연출은 서라벌에대 출신 극작가 전진호씨가 맡았다. 연기할 배우가 없었다. 기숙사에 함께 있던 김덕천을(영문과) 붙잡고 김현승선생님의 차남 문배(경제과)를 설득 했다. 여자 연기 지망생은 더욱 없었다. 학보사에 예쁜 여학생이 두 명 있었다. 오이세(영문과)와 안신자(사학과)였다. 모두들 열심히 해주었다.

공연장은 학교식당, 교직원 코너가 무대고 학생들 영역이 관중석이었다. 조명은 한양대 전기과 학생들이 맡아주고 무대미술은 서울대 미대에서 와서 해주었다. 나는 노량진 목재상에 가서 나무를 사고 지금 학생회관까지 두 번에 걸쳐 어깨에 메고 나른 기역이 난다.

연극경험이 있는 총무처의 신명훈 선생과 오삼순 문학회에서 시를 쓰던 이순배 형이 도와주고 학생처의 김종희 선배도 도와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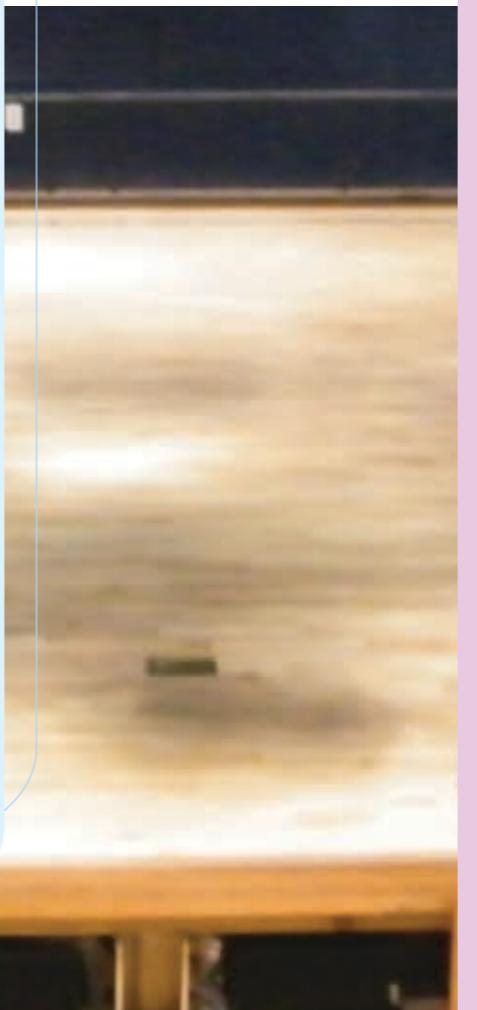
조명과 무대장치를 해주던 손님들, 우리 스태프와 캐스트들의 음식은 학교 앞 중국음식점에서 외상으로 해주었다. 그해 11월 20여일에 이틀간 공연했다. 연극이 끝나고 채플에서 고병간 학장께서 표창장과 금일봉을 하사 하셨다. 중국집 외상값도 갖고 연출료도 드렸다. 당시 학생 창작 작품으로 창단공연 한 것은 승대극회가 처음이었다.

20여년이 지난 후 우리는 공학과 앞에서 야외극으로 쏘포클레스의 '안티고네'를 공연했다. 연출은 내가 맡았다. 내 연출로 민주계단에서 T. S. 엘리엇의 '대성당의 살인'도 공연했다. 이 작품은 승실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작품으로 성공회 대성당에서도 공연했다. 이때의 연출은 정종화 선생이었다.

**민주계단은 사라졌지만, 대학극장이 다시 문을 열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반갑고 그립다.**

**그리고 늘 승대극회 출신들이 연극계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반갑고 대견하다.**

이반





07'

숭대극회장 | 김진욱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신축 학생회관 개관 기념 공연 숭대극회 동문합동공연을 찾아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 '열정'

많은 분들의 우려 속에서도 2007년에 이어 이런 큰 공연이 겨우 4년 만에 다시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재학생들도, 졸업한지 30년이 넘은 선배님들도 숭대극회인이라면 죽을 때까지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극회에 대한 불타는 열정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921년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온 숭대극회의 이 열정이 있었기에 이 공연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여해 주신 연출님과 졸업생 선배님들, 그리고 공부와 아르바이트로 정신 없이 살아가는 재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0년 동안 이어져온 숭대극회의 오랜 전통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규모의 공연인 만큼, 연초부터 어려움이 많았었지만 많은 극회인들과 동작구, 숭실대학교 관계자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멋진 공연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공연이 숭실대학교와 동작구내의 공연문화 발전에 의미 있는 한 발짝이 되길 기원하며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공연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사랑합니다. 숭대극회 !



84'

숭대극회 동문회장 | 허 공

'대학극장'이라 불리던 곳이 있던 시절에 죽어라고 연극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대학극장'이 2004년도에 사라지고.....그래도 죽어라 연극만 하더라구요. 새로운 '대학극장'을 기원하며 2007년 개교 110주년 동문합동공연을 어렵게 올렸었습니다.

이제 우여곡절 끝에 '강당'이라 불리는 '대학극장'이 생겼습니다.

'강당'이 '대학극장'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하기를 금번 동문합동공연을 통해서 기원하는 바랍니다. 숭대극회의 맥을 이어나가는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후배들이 이 '대학극장'에서 또 죽어라고 연극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학극장'도 또 하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 동참해 주시고 연극을 사랑하시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

아울러, 지역문화로의 발돋움에 계기를 마련해 주신 동작구와 새로운 극장에서 첫 공연을 위해 애써 주신 학교 관계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모든 숭대극회 동문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숭대극회동문회장 허 공

### 숭대극회 동문회



새로운 극장 개관과 공연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 동문 일동 –



07'

재학생 기획 대표 | 이현종



09'

홍창교

# IDEA & Creative



이렇게 커다란 공연 기획을 맡게 되고, 걱정부터 앞섰지만 막막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6월부터 공연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훌쩍 지나갔네요. 노력이 없으면 좋은 결과가 없겠지요.

그리고 하나에 미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할 경우도 생기는데, 포기한 것보다 더 가치있는 일다면 좋겠지요. 더불어 이런 일을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함께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연극 공연이 올라가기까지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동안 도움 주신분들, 학생팀 박근영 선생님, 동작구청 정혜주 담당자님, 이 자리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배우들을 이 자리에 있게끔 도와주신 연출님, 조연출님 여러분들의 노고로 공연이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획을 하며 여러 도움을 주신 준석이형에게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연극을 사랑하고, 연극을 즐기는 관객 여러분에게도 늘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2011 신축학생회관 개관기념 송대극회 동문합동공연.

너무나도 큰 자리이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기획일은 처음, 연기도 처음, 너무나도 힘든 5달을 보냈습니다. 힘이 들었지만, 각 분야에서 프로이신 분들과 같이 작업을 했다는 것 만으로도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평생 가지기 힘든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8월 여름방학에 준비를 하던 때가 어제 같은데 학과공부, 기획, 배우활동을 하다 보니 벌써 11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것은 물론, 여유를 갈망하게 됩니다.

현재 이 순간을 소중히 하시길... 그리고 즐기시길..



85'

졸업생 기획 대표 | 이준석



89'

소장호



92'

이명성



93'

양명호

### 약속

순수한 송대극회 동문들의 후원금과 협찬사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2007년 개교 110주년 기념 공연을 마치고 새로운 '대학극장'이 부활이 되면 함께 하고자 약속했던 동문합동공연이 드디어 2010년 10월부터 1년간의 산고 끝에 이제 그 약속을 지킵니다.

### 진화

연극이라는 예술을 통하여 형성된 송대극회는 금번 공연을 계기로 보다 창조적이고 진화된 모습을 꾀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외적으로는 숭실대학교의 송대극회가 아닌 동작구의 송대극회로서의 변모와 더불어 대학문화가 아닌 지역문화로의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내적으로 송대극회의 전통과 정신을 재정립하고 공연 기획의 매뉴얼화, 홍보적 수단으로서의 SNS, Blog 등에 대한 접목과 공연 진행에 있어서의 다양한 시도를 통하여 송대극회 공연에 대한 종체적 함양을 꾀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적인 환경 조성과 지원을 위해 학교 관계자님들과 상호 시스템 안에서의 협심단화한 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아쉬움

감히 교육의 현실과 문화라는 거시적 관념까지 언급하기는 과함이 있지만, 전공 외에 학생들의 창조적인 정신 함양을 위해서 연극과 같은 문화적 체험과 작업과정이 사회에 진출하여 보탬이 된다는 진일보한 접근과 개념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기업, 사회, 국가, 시대가 원하는 창조적인 인재 양성에 있어서 문화와 정서적 함양 활동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 감사

극단 '오늘'의 대표로서 바쁘신 와중에 공연의 연출을 봄주신 위성신 동문님과 졸업생이 아닌 재학생의 마음으로 동화시켜준 우리 후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역문화로의 접근에 도움을 주신 동작구 관계자님들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극장에서의 첫 공연을 위해 애써주신 학생처, 관리처, 시설팀, 대외협력팀, 홍보팀 등 학교 관계자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특히, 학생처 관계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항상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주신 송대극회 모든 동문님들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 미래와 다짐

상호 존중의 원칙하에 금번 공연을 통하여 사회적으로는 좋은 맨토로서의 선후배 관계와 공연 작업과정을 통한 협동심, 응집력, 창의력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혜안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존중 받을 수 있다는 예의와

무엇보다도 '나눔'과 '사랑'을 가슴속에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머리보다는 가슴이 살아 있는 송대극회인이 되어주시길 바라옵고,

후배님들 또한 한 때의 기우가 아닌 내리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미래의 후배들에게 송대극회의 정신과 마음을 전하는 다짐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잊지 않고 행동하는 모든 송대극회인이 되어주시길 기원하며... 막잡이들 올림



83'

연출 &amp; 작 | 위성신

처음 연출에 대한 제안을 받았을 때 웬지 모를 당혹감과 가슴 한켠의 울림이 가시지 않습니다. 그것도 새로운 극장 개관기념 동문합동공연이라고 하더군요.

이윽고, 숭대극회에 대한 내 머리속 기억이 세삼 다가왔습니다.

1983년 숭실대학교에 입학하여 내 연극 인생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숭대극회에 들어서고 연극에 대한 나의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누구나 한번쯤 고민하게 되는 앞날의 행로를 두고 난 연극의 길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988년 중앙대학교 연극학과에 입학하게 되고 첫 연출을 보았을 때 숭대극회 후배들이 꽃다발을 들고 축하하러 왔다. 돈이 없어서 자기네들 공연 끝나고 받은 꽃다발을 들고 왔다고 겸연쩍어 하는 후배들을 보며 깊은 감동으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대학로에서 연출로서 연극 생활을 할 때도 숭대극회와 나와의 인연은 계속되어 졌고, 숭대극회 출신의 선후배 배우들과 작품도 같이 하였으며 내가 쓴 작품들이 숭대극회 후배들의 공연에도 올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난 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극과 무관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함께하는 졸업생 후배들과 연극 배우로서 길을 같이하는 후배들, 열정적으로 다가서는 재학생 후배들, 새로운 극장에 대한 이들의 강한 소망과 열정을 함께 나누며 나도 어느 새 순수의 재학생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우리들의 꿈과 소망을 함께 할 무대에서 첫 공연을 그 누구도 아닌 숭대극회가 한다. 그렇게 애태게 기다리던 무대가 숭대극회와의 첫 입맞춤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마음껏 놀자!

어려운 가운데 애써 준 기획팀과 조연출을 맡아 준 희진이, 지영이, 그리고 모든 배우들과 스태프들 그리고 숭대극회 동문님들, 함께 해서 즐거웠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연출가 겸 작가 위성신

숭실대학교 83년 입학

중앙대학교 88년 입학

중앙대학교 연극학과 졸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출과

대학원(MFA과정) 졸업

현) 극단 오늘 대표

현) 소극장 축제 대표

현) (재) 연극인 복지재단 이사

현) (사) 한국희곡작가협의회 부이사장

대표작

〈당신만이〉 〈그대를 사랑합니다〉 〈사랑에 관한 다섯 개의 소묘〉  
〈염쟁이 유씨〉 〈늙은 부부 이야기〉 〈오감도〉 〈릭시터〉 등

저서

위성신 희곡집 〈사랑한데이; 사랑한 DAY〉 (연극과 인간, 2006)  
위성신 희곡집 두 번째 〈오감도〉 (연극과 인간, 2009)

수상

2003 올해의 연극 BEST7 〈늙은 부부 이야기\_작/ 연출〉

2006 서울 연극제 인기상 〈염쟁이 유씨\_연출〉

2008 인천연극제 대상 및 연출상, 우현예술상 수상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어머니\_연출〉

2009 김천 가족연극제 대상 및 연출상

〈아리아리동동 시장 가는 길\_작/ 연출〉



99'

조연출 | 김희진



10'

조연출 | 김지영

## 극의 줄거리

햄릿을 공연하기로한 배우들의 이야기가 술집에서 벌어진다.  
햄릿이 연락 두절되어 행방불명 된지 2일째부터 일주일간 술집에서 벌어지는 연극쟁이들의 살아가는 이야기다.

매일 일상처럼 찾아가는 술집에서 배우들은 공연에 대한 걱정과 일상의 모습을 토해낸다. 그리고 계속되는 햄릿의 연습불참으로 사람들 사이에 연습분위기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지고, 배우들끼리 다툼도 일어난다.

그러던 중 술자리에서 기쉽이 햄릿 없이 햄릿을 해보는 건 어떨겠느냐는 제안을 꺼낸다. 게다가 어차피 이렇게 된 마당에 민호는 아예 연출도 바꾸고, 공연일정을 연기해서라도 햄릿 없는 햄릿 공연을 해보자고 진수에게 제안하면서 지지를 부탁한다.

결국 연출이 작업에서 빠지게 되고 햄릿이 잠적한 지 7일째 되는 날, 대책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회의 도중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로 진수와 주석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화가난 주석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다. 남은 배우들은 다수 결에 의해 햄릿 없는 햄릿 공연을 올리기로 결정하는데..

관객이 직접 극의 일부분으로 동참한다는 점은 이 연극의 가장 큰 매력이다.

배우들과 함께 이런저런 넋두리를 듣는 말상대가 되어주면 맛있는 안주와 시원한 술 한 모금까지 들이킬 수 있다.

## 배우들의 이야기 우리들의



### 햄릿 요약

#### 1막

덴마크의 엘시노어 성벽에는 매일 밤 자정이면, 선왕의 망령이 나타난다. 선왕이 죽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선왕의 동생 **크로디어스**와 어머니 **거트루드**가 재출했다는 사실에 아들 **햄릿**은 실망과 함께 혼란에 빠진다. 그런데 중선왕의 망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을 듣고 햄릿은 직접 망령을 만나게 되고, 동생에 의해 독살을 당하게 되었으니 이 비통함을 복수해 달라는 선왕의 부탁을 받게 된다.

#### 2막

선왕의 복수를 결심하게 된 햄릿은 자신의 결심을 들키지 않기 위해 미친 척 하기 시작하고 사실을 확증하기 위해 현왕의 살인 장면을 그대로 재현하는 연극을 기획하게 된다.

#### 3막

한편, 햄릿과 사랑을 싹 피우려던 **오플리아**는 햄릿의 광기가 상사병 탓이라고 생각한 아버지에 의해 자유로운 교제를 허락받게 되지만, 햄릿은 오플리아를 밀어내며 거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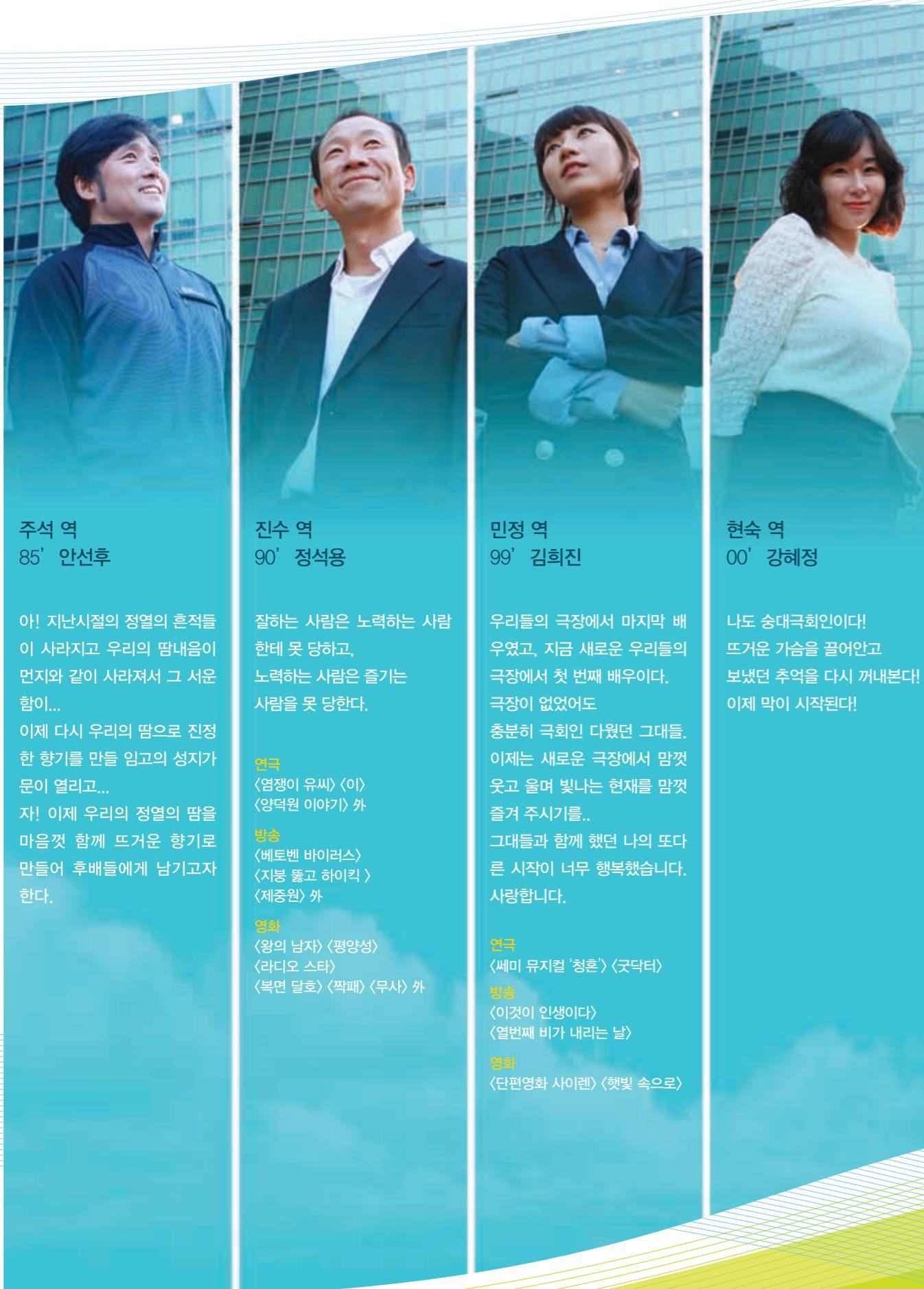
햄릿이 기획한 연극을 보던 중 충격에 휩싸여 뛰쳐나간 왕을 보며 햄릿은 확신을 하게 되고, 햄릿으로부터 사건의 일말을 듣게 된 왕비는 크게 반성한다. 그때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듣던 오플리아의 아버지 **프로니어스**는 왕이라고 착각을 한 햄릿에 의해 죽게 된다.

#### 4막

왕은 햄릿의 살인을 빌미삼아 멀리 추방하고 암살 계획을 세운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햄릿은 다시 덴마크로 돌아온다. 한편, 오플리아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실성하여 익사하게 되고 그녀의 오빠 **레어테스**는 햄릿에 대한 목수를 다짐한다.

#### 5막

오플리아의 장례식에서 만난 햄릿과 레어테스는 오해가풀리고 화해를 하지만, 화해의 겸술시합 도중 서로 상처를 입고 쓰러진다. 죽기 직전 햄릿은 독이 묻은 칼로 왕을 찔러 죽이고, 복수를 마친 햄릿은 친구에게 사실을 알린 후 서서히 죽어간다.



주석 역  
85' 안선후

아! 지난시절의 정열의 흔적들  
이 사라지고 우리의 땀내음이  
먼지와 같이 사라져서 그 서운  
함이...  
이제 다시 우리의 땀으로 진정  
한 향기를 만들 임고의 성지가  
문이 열리고...  
자! 이제 우리의 정열의 땀을  
마음껏 함께 뜨거운 향기로  
만들어 후배들에게 남기고자  
한다.

진수 역  
90' 정석용

잘하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  
한테 못 당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못 당한다.

**연극**  
〈염쟁이 유씨〉〈이〉  
〈양덕원 이야기〉外

**방송**  
〈베토벤 바이러스〉  
〈지붕 뚫고 하이킥〉  
〈제중원〉外

**영화**  
〈왕의 남자〉〈평양성〉  
〈라디오 스타〉  
〈복면 달호〉〈짝패〉〈무사〉外

민정 역  
99' 김희진

우리들의 극장에서 마지막 배  
우였고, 지금 새로운 우리들의  
극장에서 첫 번째 배우이다.  
극장이 없었어도

충분히 국회인 다웠던 그대들.  
이제는 새로운 극장에서 맘껏  
웃고 울며 빛나는 현재를 맘껏  
즐겨 주시기를..

그대들과 함께 했던 나의 또다  
른 시작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연극**  
〈쎄미 뮤지컬 '청춘'〉〈굿닥터〉

**방송**  
〈이것이 인생이다〉  
〈열번째 비가 내리는 날〉

**영화**  
〈단편영화 사이렌〉〈햇빛 속으로〉

현숙 역  
00' 강혜정

나도 승대극회인이다!  
뜨거운 가슴을 끌어안고  
보냈던 추억을 다시 꺼내본다!  
이제 막이 시작된다!

기섭 역  
06' 서동현

극장!!!!!!  
듣기만 해도 설레이는구나~  
게다가 내가 가장 먼저 밤을  
디디다니!!  
첫 번째인 만큼 제대로 신나게  
놀아 봐야겠지??  
이 기분 좋은 두근거림을  
후에 너희들도 느끼겠지?  
그렇다면 나보다 더 재미있게  
놀아봐라~

민호 역  
07' 김현우

극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적어도 전보다 무대세팅 시간  
이 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이지  
요. 이 공연을 계기로 승대극  
회가 많이 발전하여 앞으로 들  
어올 후배들이 국회를 자랑스  
러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성 역  
09' 장민아

들어온지 2년 반만에 드디어  
처음으로 포스터에 내 이름이  
적힌다. 처음으로 극장에서 연  
극을 한다.  
처음으로 졸업선배님과 연극  
을 한다. 그래서 너무 좋다.  
연기를 잘한다는건,  
즐긴다는 것과 같다.  
지금부터 나와 앞으로의  
후배들이 극장에서 뛰어 놀수  
있으면 좋겠다.

포장마차 이모 외 1인 다역  
86' 김지유

나는 상도동이 좋아요♪  
나는 승실대가 좋아요♪  
나는 국회가 좋아요♪  
우린 모두다  
승대연극회회회회♪





## 특별 출연





동영상 촬영  
89' 이범준



사진 촬영  
06' 박은지



의상  
84' 이상민



음향  
09' 최한나



조명  
08' 정성원



소품  
10' 임윤진



스폰  
06' 유병기



조명  
09' 이근희



조명 서브  
11' 이정현



홍보  
08' 김상현



홍보  
08' 서명득



홍보  
10' 김동환



스폰  
10' 오광규



홍보  
06' 이보라



음향 서브  
11' 조윤제



음악  
09' 심소망



진행  
06' 김윤배



진행  
07' 정다운



진행  
07' 이보라

### 연극적 언어는

기획, 연출, 조연출, 배우,  
무대감독, 무대장치,  
무대미술, 조명, 음악, 음향,  
의상, 분장, 소품, 홍보,  
진행, 스폰, 영상, 사진,  
안무 등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어우러져야 비로소  
연극적 언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 85' 안선후

그와 같이하는 동안 내심장의 시간은 열정으로 달리고  
늘 행복으로 가득했다. 내일도...

## 86' 김지유

~~月亮代表我的心~~~  
(달빛이 내마음을 대신합니다.)

## 90' 정석용

난 연습하러 오는게 아니라 라면먹으러 와

## 99' 김희진

무대가 열리고.. 조명이 켜지면..  
너와 같은 속도의 심장을 가진다.

## 00' 강혜정

편견에서 자유로워지면 더 넓은 세상을 만나게 된다!

## 06' 서동현

중요한건 Action이 아닌 Reaction.  
자~ 그럼 놀아보자!!!~~

## 06' 정현승

나는 곧 대학원에 들어간다. 그래, 난 엑스트라다.  
대본도 없다. 100% 애드립이다.  
노래를 못부르는데 상대역이 나보고 노래를 잘한다고  
말한다. 부담스럽다.

## 07' 김현우

레어티즈야 레어티즈야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 08' 호혜인

당신은 사랑받기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사랑받고 사세요!

## 09' 흥창교

忍+忍+忍+…+忍+忍 = Freedom

## 09' 장민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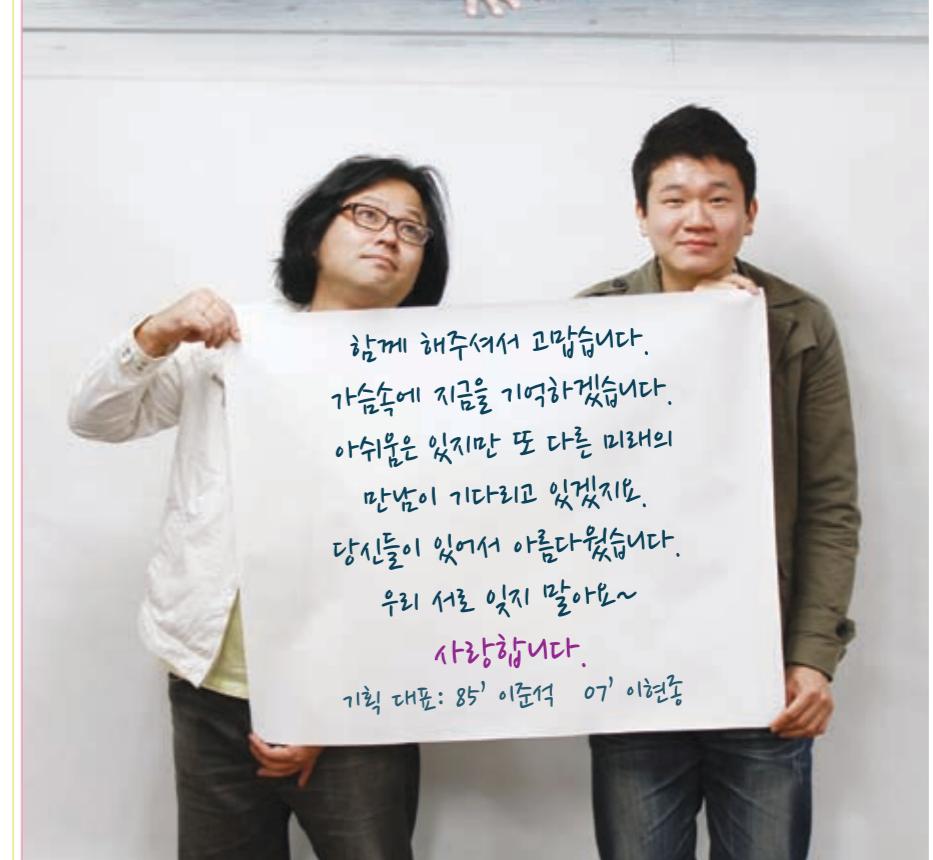
다들 너무 고맙습니다. 달릴 수 있다는게 행복해요.

## 10' 김지영

안돼...안돼...잘 안돼.  
니, 그때가 도약 할 수 있는 순간이다.  
변신! 내가 몰랐던 또 다른 나로!

## 11' 김영근

원래 웃으면서 우는거고 울고 싶으면 웃는거고  
진지하지 않는 듯하면서 진지하게 해왔다고나 할까...





**대학로 구제**  
02-766-7173



**까페 볼끼**  
T. 02. 3675. 0996  
서울 종로구 명륜2가 135-3 . 2층



자연재배농장  
에서는 30여 종의  
채소와 곡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011. 416. 4176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유촌리 387-5

**daum 카페**  
<http://cafe.daum.net/sameasme>



(주) 씨앤티 시큐리티  
016-707-9631  
<http://www.cntcctv.com>

## LG 종합인테리어

010-2740-2744

## 노무법인 춘추

011-292-9478

## OUR TOWN

이모이모 | 02-821-2600

주모리 | 02-826-8857

큐피드 | 02-812-4360

블루힐 | 02-821-2446

큰집갈비 | 02-815-1441

미주알고주알 | 02-816-9831  
많이 이용해주세요

바우 곱창 | 02-816-3380

딥치킨 | 02-823-9233

화로터

**aurazi!**

DESIGN STUDIO

디자인 아우라지



Interior | Advertising | Publication

‘아우라지’는 어우러진다는 뜻으로서,  
두 갈래 이상의 물이 한데 모이는 물목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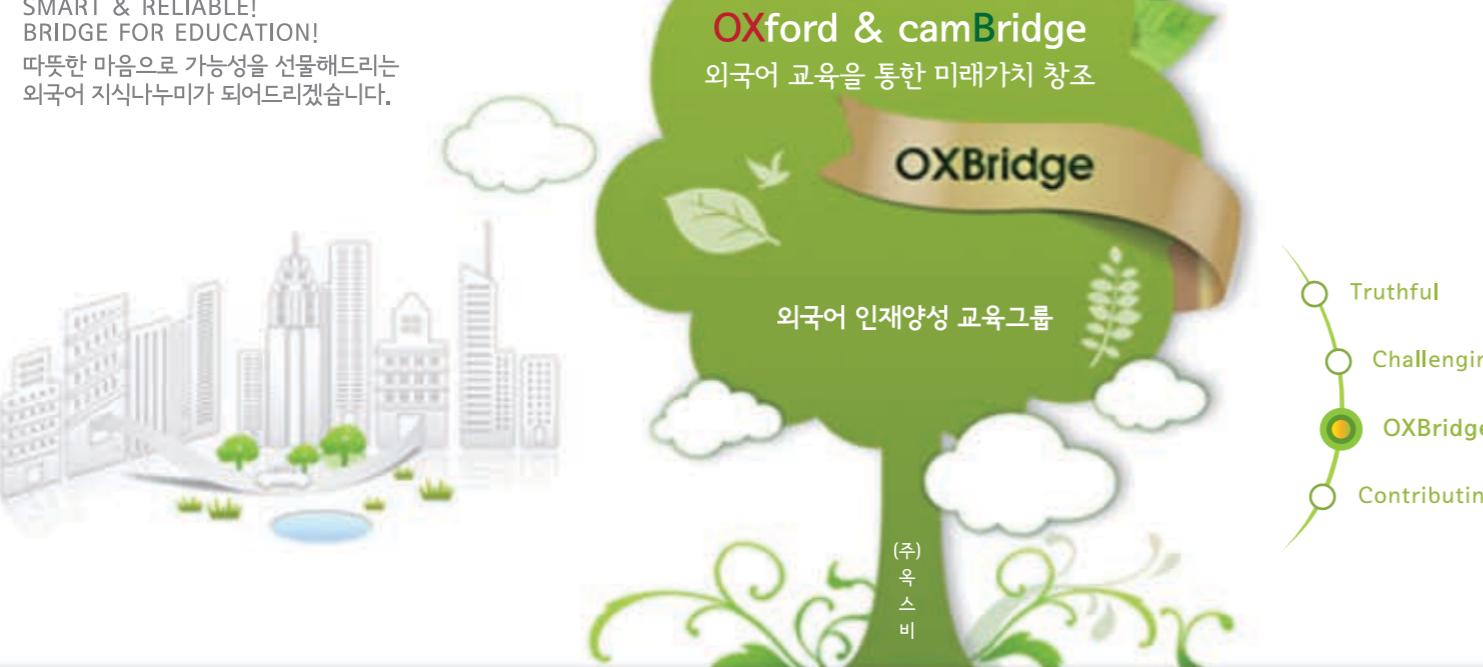
135-880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8-4 두산위브 센티움 513호

[www.aurazi.co.kr](http://www.aurazi.co.kr) TEL. 02-508-1878 FAX. 02-508-1879 E-mail. [aurazi79@naver.com](mailto:aurazi79@naver.com)



# FIRST, BEST AND DIFFERENTIATED

SMART & RELIABLE!  
BRIDGE FOR EDUCATION!  
따뜻한 마음으로 가능성을 선물해드리는  
외국어 지식나누미가 되어드리겠습니다.



Truthful  
Challenging  
OXBridge  
Contributing

“가장 쉽고, 가장 재미있게,  
외국어 자신감을 심어주는,”

영어회화  
일본어회화  
TOEIC  
OPIc  
TOEIC Speaking  
JLPT / JPT

EVENT  
상담받고 포인트받고~  
공부하고 포인트받고~

본 팜플렛을 소지하신  
등록회원님께는  
5만원상당의 포인트를,  
상담회원님께는  
3만원상당의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본이벤트는 강남점에서만 가능하며  
포인트는 1가지만 적용됩니다.)

OXB 글로벌 어학원 OXB 옥스비어학원  
[www.oxbglobal.co.kr](http://www.oxbglobal.co.kr) 1566-0515  
[www.oxbtest.com](http://www.oxbtest.com) 1566-0535

“큰 돈은 높은 금리 산업은행에”

저와 함께  
KDB가족의  
기쁨을 누려요~

KDB 산은금융그룹 후원  
박세리 선수

산은금융그룹 창립 2주년 기념 사랑나눔행사

|기간 : 2011.10.24 ~ 2011.12.16 |

KDB 산업은행 공동가입 정기예금(3차)

(11.10.24 현재, 세전, 1년) 최고 연

4.45 %

★ KDB 가족 EVENT ★

예금도 가입하고 특별한 선물도 받자~

- 행사기간 중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행사 예금에 가입하신 고객을 대상으로 선물을 드립니다!  
① 선착순 가입고객 1천명 박세리 사인 모자 증정 ② 5천만원 이상 가입고객 고급 통장지갑 증정

\* 이 행사는 판매한도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이 예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DB산업은행 이촌점 TEL. 02-2125-8000



에쿠우스



택시운수



EQUUS

